

200자 안내

아메리카 정보 컬렉션

편집부 엮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문화를 겹겹·그 레미상·럭키 스트라이크 등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알려주는 이 책은 모두 102개의 항목으로 짜여져 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코카콜라가 애초에는 약사에 의해 만들어진 드링크제였으며, 「플레이 보이」지를 만든 휴 헤프너가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다가 하는 미국문화의 이면을 전해주는 책이다.

새길 / A5신 / 304면 / 5500원

그대 슬픔에게 노래하라

버지니아 울프 지음 / 한기찬 옮김

「자기만의 방」 「덜러웨이 부인」 등의 작품을 통해 급세기에 가장 주목받았던 여류문인으로 유명한 버지니아 울프의 산문을 모아 엮었다.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산문 가운데 특히 우상과괴자로서의 신랄함을 드러내는 것만을 추린 까닭에 일관된 작가의 주장을 읽어낼 수 있으며, “또다시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메모를 남긴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울프의 실체를 보다 명료하게 느낄 수 있다.

청조사 / A5신 / 276면 / 4500원

사람이 사는 땅

정문건 지음

재영 화가가 유라시아 대륙횡단 체험을 에세이 형식에 담아 펴냈다. 위키토키와 휘발유 탱크, 그리고 슬리핑 백팩을 가지고 4명의 대원 중 한명으로 참가해 런던을 출발, 북경까지 총 19,650km를 44일간 질주한 저자는 시베리아 들만에 다친 한과와 싸우며 강행한 횡단체험을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국의 여인 카트리나와의 극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꾸밈없이 고백하는 저자의 이 책에는 인간의 지칠 줄 모르는 의지가 담겨 있다.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유영구 지음

이데올로기와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간첩’과 ‘혁명가’로 불리며 체계의 희생물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해방직후 서울

과 평양을 드나들었던 거물간첩 성시백 사진,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을 사형당하게 한 이중간첩 양명산, 동백림 사진, 박정희와 공화당 요인을 포섭하려 했던 밀사 황태성 사진의 전모 등 남북 간에 오고 간 조직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 흥미롭다.

글 / A5신 / 384면 / 5500원

잡지기가 되려면

이재현·오윤현 지음

잡지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지망생들에게 현재 잡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저자가 자신들이 체험한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 펴낸 책.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사실들을 담고 있는 설득력이 강한 내용이 특색있는 실용서. 잡지총론에서부터 체험적 기사론, 기사가 되기 위한 준비사항, 잡지사의 구조와 생리 등이 친절하게 설명돼 있으며, 잡지편집과 관련된 각종 규격표와 잡지사 연락처가 부록이다.

생활지혜사 / A5신 / 198면 / 5000원

중국어한방처방집

이원춘 편저

연변 의대 출신의 교포 2세인 저자가 일반인들의 한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한방처방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에서 펴낸 풀이쓴 한방서. 내과, 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오관과 등 모두 5장으로 구분해 가장 흔한 질병에서부터 고질병에 이르기까지 그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환자의 체질에 맞는 처방을 위해 여러가지의 방법을 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태학당 / A5신 / 358면 / 10,000원

이웃들

막심 고리키 지음 / 김명수 옮김

「세사람」 「어머니」 등의 걸작을 남기고 소련현대문학의 거봉으로 자리하고 있는 고리키의 단편만으로 구성된 작품집. 장편에서 보여줬던 작품세계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방랑생활을 통해 만났던 농부, 부랑인, 집시, 좀도둑, 목수 등 이웃 사이더들의 삶과 처절한 생존투쟁을 그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탁월한 심리묘사를 보여주는 고리키의 작가정신도 엿볼 수 있다.

공동체 / A5신 / 304면 / 5000원

나는 바다가 되리라

R. 타고르 지음 / 김양식 옮김

시집 「키탄잘리」로 동양인으로는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던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미국을 방문해 하버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했던 강연내용을 엮은 책이다. 문학·예술·

철학·과학·역사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밝힌 대표적인 에세이집이기도한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삶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세창 / A5신 / 254면 / 5000원

1900年代의 愛國啓蒙運動研究

조향래 편저

한국민의 국권회복운동이었던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에 관한 논문 12편을 모아 엮은 것으로, 신교육구구·언론계몽·민족산업진흥·국채보상·신문화·국학·민족종교·해외독립군 기지창건 등 당시의 운동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헌정연구회에 관한 일고찰’(최기영) ‘대한자강회의 애국계몽운동’(유영렬) ‘신민회의 독립군 기지 창건운동’(신용하) 등의 논문이 실려 있다.

아세아문화사 / A5신 / 510면 / 12,000원

당신 참 재미있는 여자야

노미화 지음

스스로를 “바보나 동키호테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한다”는 어느 평범한 여교사의 자기고백을 묶었다. 어릴적의 꿈대로 국민학교 교사가 되어 돈봉투 안받기, 체벌 안하기, 고른 사랑을 주는 선생님 되기를 소망했던 저자는 난관에 부딪치지만, 교육운동에 눈을 떠 달동네 아이들을 위한 탁아방을 운영하는 등 많은 활동을 벌이다가 지난 89년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남편과 함께 해직되어 현재는 학교 밖에서 참교육 운동을 하고 있다.

보리 / A5신 / 264면 / 4500원

현대 동남아시아의 이해

클라크 네어 지음 / 동남아연구회 옮김

동남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문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 입문서의 번역본. 초보적 입문서로 읽히는 이 책은 동남아 10개국의 역사 등 사회전반을 동일한 분석틀에 의해 쉽고도 간결하게 분석·기술하고 있는데, 저자가 20여년 동안 이 지역을 여행하며 수집한 자료와 체류 중 연구한 것을 한데 모은 것이다. 지리적으로는 우리와 매우 가까우면서도 늘 관심 밖의 대상이었던 동남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프레스 / A5신 / 262면 / 7000원

윤봉길 의사 일대기

임중빈 지음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의 의거를 통해 25세의 나이로 대한남아의 의혼을 만방에 토해낸 윤봉길의사의 개혁혼과 독립혼, 그리고 광복혼을 보여주는 전기. 작가는 “20여년 전부터 충남 예산 일대를 현장답

사하며 윤의사의 자취를 찾았고, 50여명에 이르는 증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전기를 완성했다”고 밝힌다. 범우 사르비아문고 138번 제권.

범우사 / A5신 / 254면 / 3000원

지리산

최화수 지음 / 심근원 사진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142번) 중 한권인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의 현상이 되었던 지리산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동식물의 서식상태, 자연경관 등을 두루 소개한 안내서. 「국제신문」 기자의 글과 산악사진가의 빼어난 사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권말에는 산 전체를 조망하는 개념도와 등산코스 안내도를 추가로 붙여 등산객들에게도 실제적 도움을 준다.

대원사 / A5신 / 128면 / 3500원

곰순이네 환경일기

이수경 지음

인류 공동의 관심사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대중적 환경서. 온 가족이 읽어 소화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그림을 곁들여 편집한 이 책은 유투백 모으기와 같은 가정에서의 실천사례와 물의 급수를 재는 방법과 산성비, 그리고 리우선언 등 환경과 관련된 상식적 수준의 사항에 대한 설명도 곁하고 있다. 외국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실정을 반영했다는 점이 특히 이 책의 장점으로 꼽힌다.

아침 / A5신 / 180면 / 3300원

열여섯살의 성과 인생

벤자민 스토크 지음 / 최재완 옮김

세계적 아동심리학자가 사춘기를 맞은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성과 사랑, 가족관계에 대한 자상한 충고가 담겨 있다. 성은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임을 강조하는 성교육 지침서로 읽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자위행위·마약·성병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성지식과 바람직한 이성교제 등에 대한 조언을 한다. 음성적 통로에 의해 전해지는 성지식이 잘못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는 데서 이 책은 출판한다.

남도 / A5신 / 206면 / 4500원

어느 천덕꾸러기 은행원의 근무일기

요코타 하마오 지음 / 김인정 옮김

명문대를 나와 10년째 은행서 근무했던 전형적 도시 엘리트인 저자가 가명으로 출판했던 화제의 책을 번역한 것. 이 책의 출판으로 직장을 잃었던 저자는 부하직원의 전화를 도청하는 지점장, 목표달성에 시달려 정신적 장애를 겪는 은행원들의 모습과 은행대출의 실

태와 부동산업자의 수법 등을 적나라하게 밝힌다. 가족주의적 기업문화를 지향하는 경제대국 일본의 은행계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범조사/A5신/288면/5000원

나이 먹는 여자 나이 뺀 여자

ESQUIRE 편집부 지음/김애자 옮김

권위 있는 여성지 「에스콰이어」가 다양한 의학적·과학적 증거와 사례연구를 통해 내놓은 여성노화 방지에 관한 보고서. 여성의 노화는 젊었을 때의 운동과 영양섭취, 올바른 생활습관 등에 의해 예방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세안방법과 모발관리에 의한 노화 방지책과 칼슘 부족현상의 예방, 노인성 치매를 막기 위한 정신활동 노력 등에 관해 원인 분석과 증세, 바른 생활습관을 제시한다.

명경/A5신/276면/5000원

내 모습 이대로

김태열 지음

현재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한진 관목사의 사모인 저자가 30년간의 봉사와 회생의 생활을 회고한 글. 목사의 부인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이 책에서 저자는, 독특한 기독교적 자녀교육법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지침, 그리고 젊은 신자들을 위한 기독교인의 배필선택조건을 실었으며, 남편과의 사랑간증도 기록했다.

국민일보사/A5신/256면/4000원

결혼은 소유도 짐착도 아닙니다

이상숙 지음

지난 82년부터 10년 동안 아내인 저자가 남편 김성규씨(영남대 의대 교수)에게 썼던 편지를 모아 묶었다. 10년의 결혼생활을 통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저자는 이 편지들을 통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보다는 남편의 전화를 기다리는 아내의 심리 등과 같이 30대 초반의 주부들이 공감할 만한 일상의 작지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펴 보인다. 대학시절 하숙집 이웃으로 만난 부부의 정감어린 모습이 그려진다.

현암사/A5신/240면/4800원

계간지

소설과 사상(93년 여름)

[기획] 소설과 역사 ▲해방 후 역사소설의 성과(정호용) ▲독일문학에서의 소설과 역사의 관계(임훈순)

[소설평] ▲성장소설과 리얼리즘(이태동) ▲새로운 자기동일성의 의지와 거두어지는 대상에의 시선(류보선)

[장편소설] ▲裕貞의 사랑(전상국) ▲회색도시(현길언)

[중편소설] 지나가는 시간들, 열일곱살 겨울(김향숙)

[단편소설] 숨은 벽(함정임)

[소설의 인물유형 탐구] 영향자(유영운)

[해의 소설이론서 해제] 애가조 소설, 못다 한 삶의 모티프(변창구)

고려원/A5신/398면/5500원

현대시사상(93년 여름)

[기획] 해체적 글읽기 ▲도둑맞은 편지(엘런 포우, 이만식)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세미나(자끄 라캉, 안지현) ▲진리의 집배원(자끄 데리다, 윤호병) ▲포우·라캉·데리다의 상호텍스트적 구조(바바라 존슨, 이득제)

[시] 이승훈/박의상/한광구/박순엽/박상순/강종원/정은숙

[해외시] 검은 시인 외 10편(양포넝 아르도, 함유선)

[에세이] 롤랑 바르뜨가 쓴 롤랑 바르뜨(롤랑 바르뜨, 편집부)

고려원/A5신/198면/3500원

경제와 사회(93년 여름)

[특별기획] 북한사회주의의 재조명 ▲북한의 지배체제 형성에 대한 연구—수령의 유일 영도체제를 중심으로(김민규) ▲북한 탁아제도의 현황과 성격변화에 대한 연구(김선임) ▲90년대 북한사회주의의 현실과 발전전망(이선태)

[쟁점토론 및 평론] ▲한국의 교회는 비판적 보수세력인가(이종구) ▲변혁 지향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강문구)

[기획연구] ▲신보수주의와 한국사회의 정책지향(박광준) ▲새로운 정치현실과 진보운동의 진로(조희연)

[변혁운동과 정책연구]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한울/A5신/340면/5800원



35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35년이 흐를 것입니다.

1985년 4월 출판인들은 협동조합운동의 이념 아래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형 출판 유통기구로서 한국출판협동조합이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푸른 이념의 빛이 바래지는 않았으나, 그 나무가 바람대로 자라나고, 다음 세대의 출판을 위하여 서늘한 그늘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만은 없겠지요. 앞선 35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내일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35년은 흘러 갈 것입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원화공급이 있습니다.**

■ 일원화 공급 참여 출판사

•경연사 •과학과 예술 •광문각 •국동문화 •기다리 •대웅출판사 •대훈사 •보문당 •보성사
•법률신문사 •사회문화연구소 •서광사 •성균관 •성음각 •양문각 •엘멘출판 •열화당 •오덕원
•요가선 •유림문화사 •음악예술사 •이론과 실천 •전문문화연구회 •전파과학사 •정문출판사
•중원문화 •증권서적(출판부) •청조사 •태성출판사 •하남출판사 •한국산업경영연구소 •한국 어학
개발원 •한국외대(출판부) •향학사 •현대미학사 •현상과 인식 •홍문관 •화평사 •한겨레
신문(출판국) •한국문화사 •한림원

■ 한국출판협동조합 일원화 공급위원회

연락처 : <공급부> 전화 716·5616~9 팩스 716·2995, 716·2999
<총무부> 전화 716·5621~3